마포구 합정동 시민제안 기획서

합정 발행소

합정의 하루를, 한 장의 신문으로

하늘길 골목에 시민이 직접 사진과 글을 편집해 '발행'하는
로컬 셀프출판 거점을 제안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미래라이프스타일과 경험

사진을 넘어, 일상을 발행하는 공간

합정의 출판문화와 20대의 사진 기록 문화를 결합해,
일상의 순간을 한 장의 신문으로 완성하는 새로운 기록 경험을 제안합니다.

01 문제

사진은 쌓이지만,
일상의 이야기는 남지 않는다

사진 촬영과 SNS 공유는 일상적인 기록 방식이 되었지만, 방문한 장소와 그날의 경험은 흩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합정의 출판·편집 문화를 방문객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02 제안

합정의 하루를 직접 편집하고
발행하는 공간

합정의 출판문화와 방문객의 일상 기록을 결합한 참여형 에디토리얼 공간 '합정 발행소'를 제안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신문이나 미니 잡지로 제작하고, 다른 시민과 기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03 기대효과

개인의 기록이 모여,
지역의 문화자산이 되다

시민에게 차별화된 문화·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기록을 축적해 합정만의 로컬 아카이브를 형성합니다. 주변 독립서점·카페·창작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방문과 교류를 유도합니다.

출판의 동네, 합정이 가진 가능성

합정의 출판·편집 문화자산과 청년층의 인구 구성,
목적형 공간 방문 트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로컬 문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16.8%

출판문화의 집적지

서울 소재 서적출판업 사업체 중
마포구 비중 16.8%.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판·편집 문화의
기반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26.5%

청년층 중심의 생활권

기존 조사자료 기준, 합정동 인구 중
20대 비중 26.5%. 청년층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 소비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61.8%

경험을 찾아가는 세대

전국 20대 응답자 중 61.8%가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체험이 공간 방문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업체조사」 2021년 기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팝업스토어 방문 경험 및 인식 조사' (전국 만 19~59세 1,000명 대상)

출판의 기억이 남아 있는 동네, 합정

인쇄, 출판문화에서 오늘날의 독립서점과 창작 공간까지,
합정은 기록과 창작의 정체성을 이어온 지역입니다.

조선

양화진 나루

삼남의 물산과 사람이 모이고
섞이던 한강의 관문

1990s

홍대의 확장

임대료를 피해 예술가, 공방, 인디
문화가 합정 골목으로

2000s

출판 문화 거리

민음사, 문학동네, 창비 사옥
북카페와 독립서점

2012~

랜드마크 유입

메세나폴리스, 딜라이트스퀘어,
2·6호선 더블 역세권

현재

합마르뜨 상권

엔터·IT·디자인 기업과
2030 1인가구,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선정

INSIGHT

합정은 늘 **외부의 사람과 문화가 모여 기록되고 편집되던 곳** 입니다.

사진 촬영에서 취향을 소장하는 경험으로

20대의 사진 소비 문화를 목적형 방문, 개인화된 제작 경험, 아날로그 소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 경험과 체험 콘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01 목적형 방문

특별한 촬영 경험

단순히 사진을 남기는 것을 넘어, 특정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차별화된 촬영 경험은 그 자체로 공간을 찾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02 개인화 소비

나만의 결과물

정형화된 결과물을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작 경험을 추구합니다. 직접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은 결과물에 대한 애착과 경험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03 아날로그 소장

손에 남는 기록

디지털 환경에서 촬영하고 공유한 일상의 순간을 실물 형태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직접 만지고 보관할 수 있는 결과물은 일시적인 사진 소비를 넘어,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INSIGHT

특별한 방문 경험과 개인화된 제작, 실물 소장 가치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새로운 기록 경험을 제안합니다.

골목의 매력은 충분하지만, 새로운 체험 콘텐츠는 부족하다

합정의 교통 접근성과 골목 문화, 20대 인구 특성을 바탕으로 주요 방문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늘길의 실제 방문 동선과 상권을 살펴보고,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교통

어디서든 닿는 더블 역세권

2·6호선 환승역에 홍대·상수·망원과 도보로 이어져 하루 동산의 출발점이 됨

분위기

홍대와 다른 취향의 골목

홍대를 떠난 창작자와 독립 서점이 모여 조용하고 취향 중심의 골목을 형성

주거

머무는 20대의 증가

1인가구 **47.76% → 56.88%**
20대 비중 **26.5%**, 단일 연령대 1위

합정의 인구분포를 기반으로
골목 쉐도잉 관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점

합정역 7번출구 → 할리스

방문객 대부분이 이곳에서 하늘길을 진입



길잡이

바닥의 하늘색 페인트

하늘색 바닥을 따라 골목 안쪽까지 이동



구성

카페, 맛집, 서점 약 190곳

주요 상점 13곳 중 12곳이 식음료 업종



관찰 결과

체험형 공간이 부족

머물며 참여할 곳은 '종이의 서재' 한 곳 뿐

사진은 찍지만, 기록은 완성되지 않는다

13명 인터뷰를 통해 사진 공유는 일상화되었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오래 간직하는 경험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의 미완성

기록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



순간을 놓치거나 촬영한 사진을 정리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유 중심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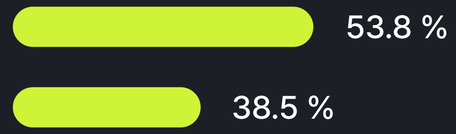
사진 공유의 일상화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일상의 순간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합니다.

경험 시간의 차이

빠른 제작과 몰입형 편집



7명은 10분 이내 제작을, 5명은 20~30분의 편집 경험을 선호합니다.

인터뷰 속에서 발견한, 기록에 대한 아쉬움

사진을 정리하지 못한 경험부터 포토부스의 획일적인 결과물까지,
실제 응답자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기록 경험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 남자끼리 포토부스에 들어가기 민망해서 촬영하지 않고 지나친 적이 많아요. “

26세 • 직장인 • 친구와 방문



“얼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찍은 장면과 하루 루트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2세 • 학생 • 데이트 방문



“사진을 찍으려다가 순간을 놓치거나 촬영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23세 · 학생 · 카페 방문



“ 스토리는 24시간 지나면 사라지니까, 그날 하루가 어떤 하루였는지 기억에 안남아요. “

22세 • 학생 • 데이트 방문

기록의 휘발성

관리의 변거로움

차별화된 경험 부족

방문 및 이용 부담

실물 제작의 낮은 접근성

사용자의 불편함을 새로운 출판 경험으로 전환하다

사용자 인터뷰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핵심 요구로 구체화하고, 이를 합정발행소의 서비스 및 공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간편한 제작 시스템에 직접 편집하는 즐거움과 실물 소장 가치를 더해, 새로운 출판형 포토부스 경험을 설계했습니다.

Pain Point 사용자의 불편함	Needs 핵심 요구	Solution 서비스 적용
기록의 휘발성	지속적인 기록과 소장	개인 신문 발행 및 아카이빙
관리의 번거로움	간편한 기록 정리	템플릿 기반 자동 편집
차별화된 경험 부족	개인화된 제작 경험	직접 글 작성 및 지면 커스텀
방문 및 이용 부담	시간과 목적에 맞는 이용	Quick / Deep 선택형 운영
실물 기록 제작의 낮은 접근성	편리한 실물 제작	종이 선택 및 현장 인쇄

합정의 출판문화와 20대의 기록 문화가 만나다

합정이 가진 출판·편집 문화자산과 20대의 사진 소비 트렌드를 결합하여,
일상의 기록을 개인의 출판물로 완성하는 새로운 공간을 제안합니다.

LOCAL IDENTITY

합정의 출판 & 편집 문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출판사, 인쇄소, 독립서점 등 합정에 축적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편집하며 발행하는 경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

CONSUMER CULTURE

20대의 사진 소비 문화

개인화된 기록과 소장 욕구

사진 촬영과 SNS 공유를 즐기는 20대의 기록 습관에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제작 과정과 아날로그 실물 소장 가치를 더합니다.

PUBLISH YOUR DAY

합정발행소

사진 촬영부터 글 작성, 지면 편집, 종이 선택, 인쇄까지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하루를 한 장의 신문으로 완성하는 로컬 출판형 포토부스입니다.

찍고, 쓰고, 편집하고, 오늘을 발행하다

사진 촬영부터 글 작성, 지면 편집, 종이 선택, 인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출판형 포토부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방문객은 자신의 하루를 직접 편집하고 한 장의 신문으로 완성합니다.

step 01
촬영하기
친구, 연인과 부스에서,
혹은 하루 동안 휴대폰으로

step 02
기사쓰기
헤드라인, 한줄기사, 날짜,
에디터명

step 03
지면 편집
신문, 영수증, 포스텁 중
레이아웃 선택

step 04
종이 고르기
샘플 월에서 색, 질감
두께를 직접 만져보고

step 05
오늘을 발행하다
인쇄물로 소장하거나
아카이빙 벽에 게시

KEY POINT

촬영에서 끝나던 기록을 편집과 인쇄까지 이어, 휴대폰 속에 방치되던 사진을 **손에 남는 출판물로 완성**합니다.

하나의 발행소, 두 가지 편집 경험

방문 목적과 체류 시간, 편집 참여도에 따라 빠른 제작 중심의 Quick Editing과 몰입형 제작 중심의 Deep Editing으로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출판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EFORE VISIT

온라인 사전 준비 또는 현장 방문

사진·텍스트 사전 등록,
예약 및 QR 연계

1F · QUICK LAB

Quick Editing

빠르고 간편한 출판 경험

10~15분

Target

커플, 친구, 가볍게 체험하고 싶은 방문객

Editing

템플릿 기반 편집, 사진 자동 배치,
짧은 기사 작성

Operation

키오스크 중심 셀프 제작 및 빠른 회전

Value

간편함, 접근성, 함께하는 재미

2F · EDITOR'S STUDIO

Deep Editing

취향을 담는 몰입형 출판 경험

40분 이상

Target

기념일에 방문하는 사용자,
창작 및 편집에 관심 있는 방문객

Editing

자유로운 지면 구성, 타자기,
글꼴 및 그래픽 커스텀

Operation

독립형 작업 데스크 및 필요시 직원의 편집 지원

Value

몰입감 · 개인화 · 높은 소장 가치

사진을 찍는 공간을 넘어, 기록을 발행하는 공간으로

기존 포토부스의 접근성과 출판 스튜디오의 창작 경험을 결합하고,
합정의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방문 목적과 소장 가치를 제안합니다.

01 촬영에서 출판으로, 경험의 확장

정형화된 사진 프레임을 넘어 사진과 글, 지면 디자인을 직접 구성하며 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출판물을 제작합니다.

기존 포토부스와의 차별화

02 선택형으로 다양한 수요 확보

빠른 회전 중심의 Quick과 몰입형 체류 중심의 Deep을 운영하여 서로 다른 방문 목적과 시간, 깊이에 대응합니다.

고객층 확대 및 운영 효율화

03 디지털 기록의 실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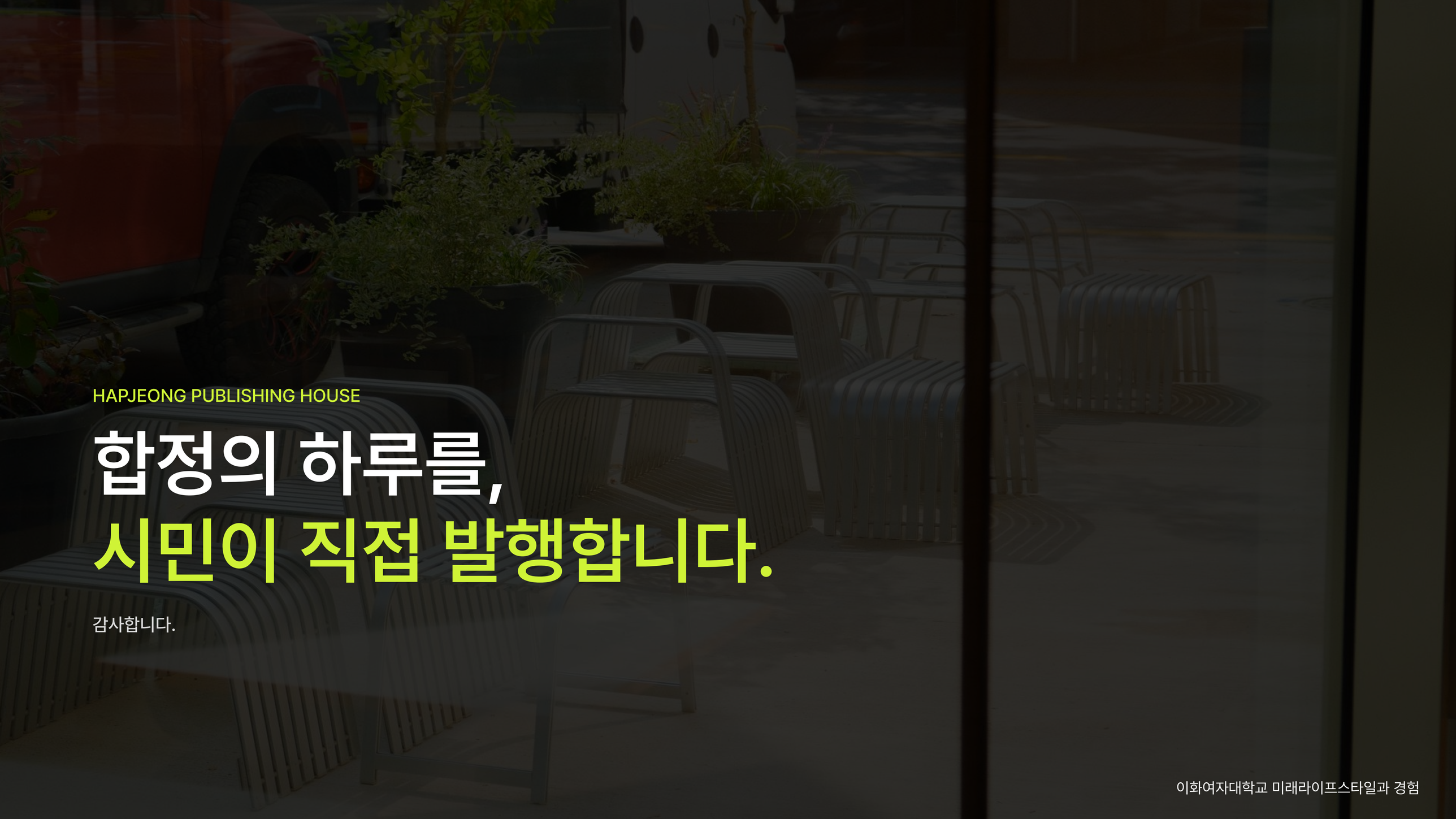
종이의 색상과 질감, 템플릿을 직접 선택하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실물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개인화 및 부가 상품 확장 가능성

04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합정의 출판·편집 문화를 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주변 카페와 독립서점, 창작 공간과의 협업을 통해 골목 탐방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지역 상권 연계 및 방문 동기 형성



HAPJEONG PUBLISHING HOUSE

합정의 하루를,
시민이 직접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미래라이프스타일과 경험